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발간사

"유신독재 시대를 증언하자"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출간에 부쳐

긴조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의 준말인 이 말의 의미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고 있다. 어쩌면 그 당시의 암울하고 숨막히던 분위기를 짐작하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긴조9호는 박정희 1인독재체제의 영구화를 위해 남발해 왔던 초헌법적 조치, 즉 헌법파괴적 비상조치의 종합판, 결정판이었다. 그런데 그 비상조치에는 계엄령이나 계엄군도 없었고, 군사법정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헌법효력을 정지시키는 비상조치를 발동시켰던 것이다. 워낙 비상조치를 일상적 사법적 통치체계속으로 편입시킨 것이라서,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이런 헌법정지 또는 '사실상의 무헌법상태'를 일상적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하도록 구조화시켰다는 특징이 있었다. 누군가 상당한 법률기술자들이 부역하여 고도로 정교하게 짜놓은 시스템이었다. 잠시 발동되는 비상조치가 아니었고, 실제로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4년 7개월간이나 지속되었다. 만일 박정희가 그때 죽지 않았더라면, 한참 더 긴조9호 체제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헌논의 금지', '집회시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이런 긴급조치에 대한 비방 금지', '긴급조치 위반 내용의 보도나 전파 금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긴조9호는 그때까지 민주화운동 세력이 펼쳐온 유신 독재 반대 투쟁을 모두 원천 봉쇄시키려는 목적으로 발동되었다. 그 결과 긴조9호가 발동된 이후의 신문, 방송은 유신독재 권력의 뜻에 반하는 내용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권력자의 뜻에 어긋나는 사실은 모두 유언비어로 취급되고 가혹하게 형사처벌 되면서 해당자는 '신세 조지는' 판이었으니, 현재 남아 있는 그 시대의 모든 공식 기록이나 언론 보도 내용은 철저하게 권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조작된' 기록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이 조작된 보도이고 역사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그 시절 유신독재 정권에 앞장섰던 자들이나 부역하였던 자들이 가소롭게도 '원로'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등 수구적 선동에 앞장서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 일방적으로 미화되고 조작된 언론보도에 중독된 일반 국민들의 아련한 기억에 편승하여 박정희 부활 신드롬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드디어는 대통령 자리까지 넘보는 상황이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우리들의 무관심과 나태함에 기인한 바도 있다는 점을 반성한다. 그때 감옥간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자랑하듯이 내세우기는 뭣하지 않느냐는 식의 다소 소박한 충정들이 이해되지 못할 바 아니지만, 왜곡되고 조작된 역사를 방치해 놓은 데 대한 책임은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바로 쓰는 것은 역사가의 몫이 되겠지만, 그 시대에 나름대로 헌신한 우리가 적어도 그 역사의 기초적인 증언자 역할은 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역사적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긴조와 집시 세대'로 불리는 우리들은 그런 의무감에서 출발하여 이런 유형의 책을 계속 출간하는 방안과, 그 시대 민주화 투쟁에 주도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집단구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해서 그 시대를 증언하는 이 책 한 권을 우선 출간하게 된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유신독재시대, 긴조9호 시대, 그리고 학살과 포고령 및 집시법이 난무하던 군사독재시대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본격화되기를 촉구한다.

2005년 5월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박 석 운